

“학자에게 정년퇴직이란 없다”



한양대 석좌교수이면서 백범학술원 원장으로 있는 신용하 씨가 한양대 도서관에 한국학 자료 1만여 점을 기증해 화제가 되었다. 학자로서, 집필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준비중인 신용하 씨를 특별 인터뷰에 초대했다.

올 2월에 서울대에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월요일, 수요일은 서울대에 강의를 나가고 화, 목, 금, 토요일에는 백범학술원과 한양대에 나갑니다. 오전에는 주로 여기 백범학술원에 있고, 오후에는 한양대에 나가고 있습니다.

한양대에 한국학 자료를 1만여 점 기증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한양대에서 신용하문고라고 따로 방을 만들어 책을 아주 우대해요. 기증한 자료 중에 제 입장에선 모두 귀중한 자료지만, 앞으로 연구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도에 관한 제 자료는 다 그곳에 보관이 되어 있어 앞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자료는 신용하문고를 활용해야 될 겁니다.

언론에서 4·19 세대가 학교에서 대거 퇴장한다고 기사화했는데 그런 기사를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이어령 씨가 저보다 몇 년 선배인데 우연히 한 자리에서 만난 일이 있어요, 아주 엄정하게 경고를 하던데요.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고려장 지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영향 받아서 손자들 데리고 놀지 말라, 지식인에게 정년이 어디 있느냐, 계속 글 쓰고 계속 연구하라고 하시더군요.(웃음)

백범학술원과 백범기념관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백범기념관은 2002년 10월에 오픈을 했어요. 백범 선생은 처음부터 통일 대한민국을 건국해야지 남과 북이 각각 두 개 정부를 세우면 내전이 일어나서 민족의 앞날에 큰 지장이 온다고 해서 처음부터 통일 대한민국을 수립하도록 하고 남과 북이 각각 단정을 수립하는 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단정 수립 추진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암살당하셨죠. 민간인들의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기념사업을 해도 탄압을 안 해 자연스럽게 백범기념관 설립을 추진했지요. 이 터는 국유지입니다. 호창공원이라고 하는 국유지 내에 지은 거죠. 백범기념사업협회와 백범학술원은 민간기관이에요. 백범기념관은 국유지에 지었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가 공급했지만 건축과 터는 국가 예산의 도움을 받았어요. 백범기념관은 그래서 국유재산입니다. 백범학술원은 별도지요.

백범학술원에서 하는 사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5개월밖에 안 되어서 지금도 계속 정비중인데, 백범

에 관한 연구·조사 활동, 잡지·서적의 발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잡지는 곧 나오는데 제호는 <백범과 민족운동 연구>입니다. 현재는 일 년에 한 번 내는 정기간행물인데, 곧 일 년에 두 번씩 반년간으로 할 생각입니다. 단행본은 총서를 두 권 낸 상태입니다. 나남출판사에 위탁했죠.

나남출판사에 맡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남에 맡기게 된 이유는 대한매일이 주체가 되어 《백범김구선생전집》을 거기서 냈거든요. 그 책을 잘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아주 흡족해서 위촉하게 되었지요.

동아일보에 연재하고 계신 <새로 쓰는 신용하의 한국문화>는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된 것입니까?

백 개 정도 아이템을 뽑았어요. 왜냐면 책을 읽다가 이걸 내가 논문을 쓰겠다 한 게 있어요. 두레는 그래도 몇 편 썼는데 거의 쓰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제자들이 아이디어가 아까우니 녹음을 해두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녹음을 하려고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백 개 아이템 중에 10개씩 방송을 하거나 글을 쓰게 되었는데, 동아일보에는 열 개 아이템을 쓰기로 계약을 했어요. 11번부터는 다른 신문이나 다른 방송에 나갈 거예요. 다 쓴 다음에 책으로 묶을 생각입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민족사회학을 공부해 오셨습니까.

저는 민족사회학을 공부해 왔어요. 민족 이론, 그런데 그것도 주로 일반이론은 조금만 하고 한국민족을 주로 연구해 왔어요. 한국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뿌리에 관한 자료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종합적 고찰을 해야 돼서 그런지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단군의 자손이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과학적으로 한국민족의 뿌리형성 과정을 밝히려고 합니다. 다른 후배학자들이 저처럼 이만큼 집요하게 관심을 갖기는 어렵죠. 중국 역사로 말하면 한무제 때 우리나라에 한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중국측의 기록이 조금 있는데 기원전 7세기부터 기록이 나와요. 중국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가 길이가 비슷해요. 그렇지만 중국은 기원전 7세기 이전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연구하고 쓰고 그랬어요. 고고유물 발굴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문헌이 있는 것만 역사라고 생각해요,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은 선사시대라 해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다 문자로 기록되기 전의 것들이에요. 그럼 전혀 흔적

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고유물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부터 상징적 부호 같은 것까지 아직 해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다고 밝혀놓지 않으면 나만큼 집요한 후배 학자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제가 계속 연구를 해야지요. 100을 투입해서 아웃풋이 하나만 나오는 이 비능률적인 일을 요즘의 세대가 할까 싶어요.

한국인의 뿌리 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지요.

전근대적 민족으로부터 근대민족으로 진입하는 데 우리는 실패했어요. 일제 식민지가 되어 겨우 독립을 찾았는데 반쪽씩 잘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소년시절부터 하고 싶던 거였고 이미 논문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만일에 여유가 있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 가치판단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부강국이 될 것은 틀림없다고 봐요. 앞으로는 지식 첨단 지식의 시대인데 우리 민족이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훌륭한 교육제도만 뒷받침되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이 된 다음, 우리 민족이 미국이 하는 것처럼 약한 나라를 부수고 문화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아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도 약한 민족을 도와주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도 쓰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집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제강점기의 한국민족사》 하권을 다 못 끝내고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올 해 말까지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백범 김구 선생 평전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마무리지어야지요. 백범 선생은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 중 한 분인데 우리 후손들이 보답도 못해드리고 돌아가시게 했어요. 보답은커녕 고국에 들어와서 편하게 쉬려고 하는데도 암살 시해를 했지요. 우리 민족은 자기 나라를 구해낼려고 모든 걸 바치신 분들에게 뒤처리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 백범 선생의 독립운동, 평화통일운동,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정신을 잘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민**

취재 양선희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